

권찬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16>

문수보살의 가르침

선재동자가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참회하고 새롭게 살아갈 것을 발원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길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청하는 것을 듣고난 문수보살은 그가 이미 보리심을 발해서, 선지식을 가까이하여 보살행을 하고 보살도를 닦으려 하는 정신을 칭찬하면서 "선지식들을 가까이하고 공양하는 것이 온갖 지혜를 구축하는 첫째 인연이기 때문에 이 일에 고답파하는 생각을 말라"고 당부한다.

선지식을 친근하고, 선지식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은 보살도를 성취할 수 있는 근본태도다.

보살도를 닦으려면 먼저 선지식을 친견하고 공양하라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선재동자는 다시 보살행을 배우고 닦으

"선지식 가까이 하고 가르침 실천하라"

보현행은 믿고 구하는 사이 자연히 성취

며, 보현행을 빨리 원만하게 하는 법을 묻는다. 이에 대해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은 계승을 설하는 것이다.

"광대한 서원을 세워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세상 사람을 위하여/ 보살행을 닦으니// ...방편바다에 들어가/ 부처의 보리에 머무르면/ 지도하는 스승을 따라 배워서/ 온갖 지혜를 이루게 되리// 그대 모든 세계에 두루하며/ 티끌 같은 겁 동안에/ 보현의 행을 닦아 행하면/ 보리의 도를

성취하리라" 보살행이란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닦는 것이며, 스승의 지도를 따라 배워서 온갖 지혜를 이루게 되며, 일체의 시간과 장소에서 항상 모든 중생에게 이로운 행을 주고 자비로운 행을 펼치는 보현행을 수행하여 도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실천 것이다. 여기에 보살행을 닦는 목적과 방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 보살도를 닦아 나아가는 데에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이 이토록 강조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선지식이 법을 설해주는 훌륭한 스승으로서 모든 법을 바르게 잘 알아서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광명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계품>에서 "선지식은 모든 나쁜 길을

그러므로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있다. <입법계품>에서 "선지식이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면 부처님 세존이 모두 환희하며, 선지식의 말을 순종하면 온갖 지혜를 갖춘 경지에 가까워지며, 선지식의 말에 의혹이 없으면 모든 선지식을 항상 만날 것이며, 마음을 내어 항상 선지식을 떠나지 않으려 하면 모든 이치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한 것은 선지식을 친근하면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식이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 주는 근원으로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해주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선지식을 친근하는 의의와 공덕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진실한 세계에 새롭게 눈을 뜬 선재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최초로 가르침을 받은 것은 보현행을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것과 그 보현행을 갖출 수 있는 도(道)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현행을 갖추는 것은 선지식을 믿고 구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선재동자에게 선지식을 찾는 일에 실증을 내거나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남쪽의 승낙(勝樂)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봉산(妙峯山)에 있는 덕운(德雲)비구를 소개하면서,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살이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하게 하느냐"고 물을 것을 권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널리 구호하며 여러 평등한 법을 널리 연설하며, 모든 평탄하고 험난한 길을 보이며 대승의 깊은 이치를 널리 열며, 보현의 모든 행을 널리 닦기를 권하며, 온갖 지혜의 성에 널리 인도하여 이르게 하며, 법계의 큰 바다에 두루 들어가게 하며, 삼세의 진리의 바다를 널리 보게 하며, 여러 성인의 가르침을 보여주며, 모든 청정한 법을 널리 자라게 해준다"는 바로 선지식의 의의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창조적인 참여로 이해된다. 어떤 교설이 처음에 나타나 주도적인 가치로 자리잡으면, 그것은 결국은 맹목적인 추종자를 배출하는 독단이 되고, 시대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권력의 형태로 까지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초기불교는 아르만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아의 교설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출가중심의 떠남이 강조되면서, 지금여기의 현실적인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대승불교는 초기불교에서 주장하는 법 자체가 또 하나의 개념 내지 관념에 떨어지

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관념에 떨어졌으며, 나아가서는 수구적 정치권력에 대해서 허약한 측면을 드러냈다. 이런 화엄교화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수행이론이 바로 간화선이다. 따라서 간화선은 화엄교화의 교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렇듯이 든교를 '말 떠남과 생각을 끊음'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유독 든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의 역사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교설에서 나타난 성격이라는 것이다. 법장의 <요강>에서 말하는 교판은 교설 간의 동질성보다는 차이점을 명료하게 구별함으로써 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설 사이에 나타난 차이점이야말로 그 교설이 존재해야 하는 역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점은 종파불교가 성립되는 현실적인 근거이기도 한다. 교설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주목하지 못한다면, 교판설은 사실상 성립기반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역할까지 망각할 수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한국불교를 통불교라는 획일화된 전통적인 이해방식에서, 이제는 다양한 불교의 모습을 지양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직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인경(禪宗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일체유심조와 집합무의식

우주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웅은 집합무의식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했고 불교에서는 공(空)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했다. 이때 공(空)이란 마음(心)이라 하고, 여래장(來藏) 혹은 불성(佛性)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우주 허공을 충만하고 있는 공(空)이라는 단어는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해석하는데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공과 일체유심조를 서로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불교의 일체유심조는 원체 유명하여 일반인들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체유심조 뜻을 원호스님과 해골바가지 속의 불에 대한 일화로 설명하고 있다. 즉 똑같은 물인데도, 모르고 마셨을 때는 감로수가 되었으나, 해

과 식(識)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인도불교에서는 심이라는 단어가 보다 공이나 식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불교에서는 공보다 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속에 심(心)자가 들어 있어 사람들은 일체유심조를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해석하는 모양이나, 십자대문에 공과 일체유심조를 서로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일체유공조(一切唯空造)"라고 하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공(空)이 모이고 모여서 된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 이를 다시 공(空) 대신에 심(心)을 넣어 해석하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심(心)이 모이고 모여서 된 것이다"가 된다. 필자는 이것

"존재하는 모든 것 마음이 모여 된 것"

초양자장 충만한 우주 불교의 심과 비숫

골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인 줄 알고 넘어니 속이 뒤뜰린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경우의 일체유심조는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공이란 부처님이 깨친 자리에서 이 허공을 바라보았을 때, 허공을 이루고 있는 실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후에 사람들이 가장 적당한 말로 생각했던 것이 산스크리트어로 '수냐타(sunya)'이다. 이 말이 중국 스님들에 의해서 한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단어가 공(空)으로 된 것이다.

일본의 불교 철학자 우에다 요시부미가 저술한 <대승불교의 사상>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불교 경전에는 공(空)과 같은 뜻으로 심(心)

이 올바른 해석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즉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心)이 모이고 모여서 된 것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오늘날 과학 지식으로 설명해 보겠다.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보姆은 우주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양자장(superquantum field)으로 충만해 있다고 하였으며, 초양자장으로 충만한 우주는 하나(oneness)로 연결돼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초양자장은 '능동성 정보(active information)', 혹은 '초의식(supemind)'와 같은 뜻이 있으며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심과 매우 비슷하다.

일체유심조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지구 환경, 나아가 인간과 우주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필요하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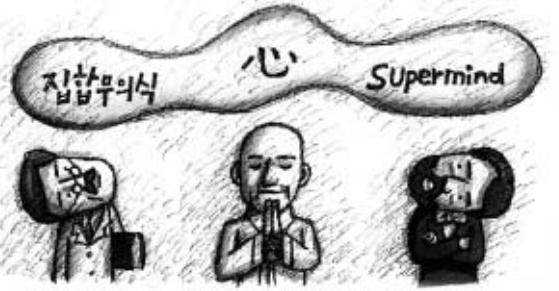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①

해원의 돈교비판(2)

법장의 돈교론에 대한 해원의 첫 번째 비판은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비판은 '말 떠남 이치의 존재'에 항하여져 있다. 만약 돈교를 '말 떠남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로는 침묵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어에 의해서 대상으로서 이치를 드러내는 교설의 범주에 포함할 수가 없다.

돈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말 떠남 자체가 그대로 하나의 이치'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해원은 말 떠남 자체가 그대로 이치를 드러낸다면, 이런 경우는 다른 가르침에서도 말 떠남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돈교의 독자적인 교설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르침의 대상으로서 이치가 말을 떠나서 바로 존재하는 대상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 떠남' 그 자체가 이치라는 관점이다. 말 떠남이 그 자체로 이치라면, 이런 가

르침은 돈교(頓敎)뿐만 아니라, 대승종교(大乘敎)나 화엄원교(華嚴圓敎)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 해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유독 '돈교'라고 따로 독립시켜서 별도의 교판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보조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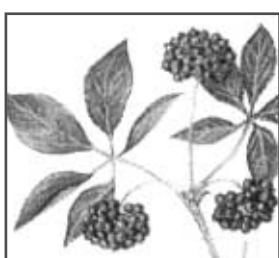
점을 중시하고,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법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법무아(法無我)의 교설과 보살이란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하였다. 이것이 불교의 역사다. 대승의 현실공정이라는 가치는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화엄의 법계연기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설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대한 절대대응은 다시 급변하는 현실을 제

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창조적인 참여로 이해된다. 어떤 교설이 처음에 나타나 주도적인 가치로 자리잡으면, 그것은 결국은 맹목적인 추종자를 배출하는 독단이 되고, 시대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권력의 형태로 까지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차이점 주목 못하면 성립기반 무너져

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불교사를 개관해 보면 교설은 끊임없이 기존의 견해를 부정하면서 발전해 온 경향이 있다. 불교는 어떤 하나의 교설만을 일관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불교의 역사란 기존의 교설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교설에 대해서는 배반의 역사였다는 평가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배반이란 기존의 해석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압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가품이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개월만 음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탕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히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음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노년층
-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 또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노년층
- ◇ 기력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입금확인 후 1-2일 이내 배송. 계좌번호 (예금주 : 김현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공금업체 : 케이앤알링크 / 홈페이지 : http://www.knr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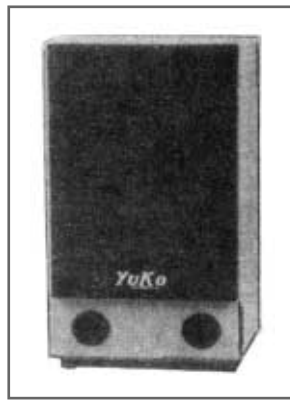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 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자 내용

-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소장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미끼에 흡사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 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 법당 및 요사채 불사 동참 (우리는행 551-215163-02-001 성거사)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천안시 목천읍 송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 567-6822